

열방의 교회를 섬기라

사도행전 23:23-35

23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마병 칠십 명과 창군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24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26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27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보병이 명을 받은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 가니라 33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줄 알고 35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받은 부르심 가운데 하나도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워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잘한 때도 있었고 실수한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워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보아 온 것 중, 사람들이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정말 공급해 주실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이 두 질문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세를 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까?” “우리 아이의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매년 가던 휴가는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워 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재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사역에도 정말 충분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이 질문들이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3-24절입니다.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 밤 제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가게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29절에서 천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5절에서는 벨릭스가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호위를 받게 됩니다. 무려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죄수로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실수를 했던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히려 바울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머물게 된 곳은 헤롯의 관저였습니다. 헤롯이 행정 중심지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거대한 궁전 단지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외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로마법에 따라 제대로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의 제도와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개인적인 군사 호위였고, 로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우호적인 보고서였으며, 로마로 가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신약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를 제외하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노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실제로 로마의 죄수가 되어 죄수의 신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표현했던 죄수, 종, 사도라는 말에는 세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수는 감옥과 교도관의 통제 아래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치르고 형기가 끝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뜻과 부르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죄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살펴보면 계속 보아 왔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로마 제국이 그 공급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준비했으며, 각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될 영적인 싸움까지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교지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공급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공급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급은 아무 데서나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적인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은 해외 선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2-13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뒤에 한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년 동안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부르심이 꿈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신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공급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대를 주십니다

이 무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바울에게 그 무대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심지어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노예’와 같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노예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인의 유익을 위해 복종시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전체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100% 그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예의 주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노예들을 이용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대서양 횡단 아프리카 노예무역 시대보다도 더 많은 노예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세상의 모든 인간 노예 주인들 또는 적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서 얻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무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전할 수 있는 무대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지상명령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적인 나라를 위해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의와 믿음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사람들의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대다수가 무슬림인 아랍 인구가 훨씬 젊다는 점도 있고,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나이가 많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종교들, 특히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무슬림들을 실제로 구별 짓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6시간**을 잔다고 합시다. 그러면 깨어 있는 시간은 **18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한 번에 약 **10분**씩 기도하는 무슬림이라면, 하루 동안 약 한 시간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무슬림들은 실제로 기도하기 위해 모스크에 직접 갑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경제와 직장 문화 자체가 이러한 기도 시간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 **30분** 정도를 사용하여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대거나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 알라, 곧 적그리스도의 신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존재 전체가 그들의 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무슬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고 노예처럼 완전히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하루 한 날조차, 아니 **30분**조차도 기도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가 가장 잘 조직되고 집중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종교인 몰몬교입니다. 몰몬교회는 모든 남성이 각자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남성에게 **2년간**의 선교를 기대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선교여행을 가 본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예로 복종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고, 젊은 남성으로서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신과 왜곡되고 이단적인 형태의 복음을 위해 바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나 모스크, 또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길어야 앞으로 30년이나 40년 정도 누리다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별다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의 힘과 여러분 자신의 계획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는 사실이나 몰몬교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2년을 선교에 바친다는 사실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도전이나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미지근한 종교적 교회 출석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Bridge of the Valley**를 거쳐 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3.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을 로마에서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 셋을 통해 노아와 아담까지 이어지는 유대인의 왕만도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온 우주의 주님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영원히 온 우주의 주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난 금요일 미가의 예언을 살펴보면 나누었던 것처럼, 베들레헬은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당시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습니까? 당시 로마는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과도 같았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건설했고, 수도교를 만들었으며,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실제 영토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대영제국이나 몽골제국과 같은 다른 거대한 제국들과 비교할 때 로마제국의 영토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습, 법과 언어에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로마에 견줄 만한 제국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2026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로마제국의 영향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셔서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존재했던 그 ‘로마’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제 사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노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며,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최초의 사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도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예배가 나의 감정을 움직여 주는가?” “목사님은 열정적이고 설교를 잘하는가?” “교회 음식은 맛있는가?” 물론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상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씀과 훌륭한 찬양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것인가만 생각하는 대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신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막아 버리는 대신, “성령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마’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자신의 구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대한 무대, 우리의 ‘로마’에서 하나님의 세계 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최고의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분의 뜻에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무대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후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수였고,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 전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도, 경험도, 배경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게 사용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크고 세계적인 규모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 지금도 그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역할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대에 나아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들을 세상에 나누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전하고 싶은 갈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부르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시간, 재정, 가족, 능력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3.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 정부의 권력, 이동 수단, 심지어 바울의 감옥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거나 길을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4.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 종, 그리고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5. 오늘 설교에서는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고 지상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교회생활, 섬김, 헌신, 그리고 사역을 바라보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6.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11) 그렇다면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람,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또는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까?
7. ‘세계적인 그리스도인(World-Class Christian)’은 자신의 필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기도, 헌금, 섬김, 선교, 이웃을 환대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8.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종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9.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